논어 18편 미자 10장 · 원문·풀이

周公謂魯公曰：「君子不施其親，不使大臣怨乎不以。故舊無大故，則不棄也，無求備於一人。」

독음 · 주공위로공왈 군자불이기친 불사대신원호불이 고구무대고 즉불기야 무구비어일인

쉬운 풀이(요약) · 주공은 친족을 버리지 말고 대신이 쓰이지 못함을 원망하게 하지 말며, 큰 잘못 없는 옛 벗을 버리지 말고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周 두루 주 주 / 公 공변될 공 공 / 謂 고할 위 위 / 魯 노둔할 로 로

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 / 子 아들 자 / 不 아닐 불

施 베풀 시 시 / 其 그 기 / 親 사랑할 친 친 / 使 하여금 사 사

大 클 대 대 / 臣 신하 신 신 / 怨 원망할 원 원 / 乎 어조사 호

以 써 이 이 / 故 옛 고 고 / 舊 옛 구 구 / 無 없을 무 무

則 곧 즉 / 棄 버릴 기 기 / 也 어조사 야 / 求 찾을 구 구

備 갖출 비 비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一 한 일 일 / 人 사람 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